

# 진도 농산물가공센터 창업 기지 역할

### 구기자 등 48개 제품 생산...연매출 20억원 시제품 개발·상품화 전문 교육 기술 지원도

진도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판매하는 진도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농업인 가공 창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29일 진도군에 따르면 농업인들은 제조·가공을 위한 포장·부자재 등의 비용만 부담하면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어 진도율금과 구기자, 대파 등을 활용한 티백차, 추출액, 음료 등 총 48개 제품을 생산, 1년 매출액 20여억원을 올

리고 있다.

생산된 가공 제품은 농협 로컬푸드매장과 진도명품관 특산물 판매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솔비치 진도 판매장 등에도 제품 납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으로 재배된 비트 분말과 농축액을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지난 4월부터 연간 40톤을 납품해 오고 있는 등 판로를 새롭게 개척해 나가고 있다.

진도군은 소규모가공창업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2017년 9월 진도농산물가공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해 상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접근성을 위해 진도를 포산리에 있으며, 시설과 기술 부족으로 가공 분야에 도전하지 못했던 소규모 농가들에 기술 지원을 통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개발해 왔다.

9월 현재 건조·분말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는 40여종의 장비가 있다.

올해 10억원을 투자해 가공포장시설 설치와 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HACCP) 인증 추진 등을 통해 고품질

의 농산물 가공품을 생산,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진도군은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 전문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시제품 제작, 가공시설 운영 매뉴얼, 제품개발 컨설팅·표준화 등 통해 가공 상품화를 진행해 오고 있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활용한 연구·개발로 고품질의 농산물 가공품을 생산하고 다양한 판매처를 확보해 소비 촉진을 통한 농가 소득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도=박병호 기자

# 고급~청용 시설 개량 국가계획 반영 완도, 412억 투입해 2차로 사업 추진

완도군은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고급면상정·청용 구간의 시설 개량 사업이 반영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29일 밝혔다.

완도군에 따르면 고급면상정·청용 구간은 412억 원을 투입해 7.2km의 2차로 시설 개량 사업을 추진한다.

이 구간은 2001년 국도로 승격 후 완도와 강진 마량을 연결하는 국도 77호선의 연륙교(신지대교, 장보고대교, 고금대교)가 모두 준공돼 교통량이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노폭 협소, 선형 불량 및 굴곡이 심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했다.

이에 군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도와 협의해 중앙부처와 정치권 등을 수차례 방문, 건의의 결과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됐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고급 상정·청용 구간의 국가 계획 반영으로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교통편의 제공과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주여건 개선,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중앙부처, 정치권, 전남도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사업이 차질 없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최규욱 기자

# 영암, 화재안전 인프라 구축 박차

### 8,493세대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영암군이 화재로부터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9일 영암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12월 21일까지 3개월간 관내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화재 취약지역에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를 무상으로 보급한다.

영암군은 소방서 및 마을이장들과 함께 실거주 등을 면밀하게 조사해 확정된 8,493세대를 대상으로 군비 2억 2,000여 만원을 투입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을 통해 화재로부터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방시설 구비도 중요하지만, 화재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도 꼭 준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군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재난취약세대(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등)와 장애인 거주 가정 8,454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했다./영암=최복섭 기자



2022년도 환경부가 추진하는 국가생태탐방로 신규 지정을 위해 최근 환경부 외부평가위원회와 전남도청 관계자가 현장을 방문한 가운데 이승욱 강진군수가 강진만생태공원에서 대상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 무안, 귀농귀촌 멘토링 지원 영농기술 향상·농촌 적응 도와

무안군은 최근 2021년 귀농귀촌 멘토링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귀농인의 영농기술 향상과 농촌 적응을 돕기 위해 관내 선도 농가와 1대1 매칭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멘티와 멘토에게 최대 5개월까지 각각 월 80만원, 40만원을 지원해 소득이 불안정한 초기 귀농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동시에 선도농가의 기술전수 부담까지 줄여줘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올해 선정자 김성수 씨와 이미지 씨는 각각 한우와 고구마 멘토링을 통해 영농역량을 길렀고, 특히 이미지 씨의 경우 농지를 마련해 고구마 자가 영농을 시작했다.

고구마 멘토로 활동한 강행원 씨는 “멘티 이미지 씨를 조합의 일원으로 받아 농산물 판로 확보에 도움을 주고 사업 동반자로 함께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번 멘토링 지원사업을 계기로 멘티는 영농기술을 전수받을 뿐만 아니라 농업활동을 함께할 든든한 조력자까지 생긴 셈이다.

김산 군수는 “열정이 있는 멘토와 묵묵히 따라주는 멘티가 서로 잘 만나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며 “지원사업은 끝이 났지만 이번이 맺어진 인연을 통해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농업인으로 꾸준히 성장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무안=박주현 기자

# 강진, 국가 생태탐방로 신규지정 온힘

### 환경부 관계자 등 현장 방문...공모 선정 요청

강진군이 2022년도 환경부가 추진하는 국가생태탐방로 신규 지정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29일 강진군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 외부평가위원회와 전남도청 관계자가 강진만생태공원 현장을 방문한 가운데 이승욱 강진군수가 대상지에 대한 설명이 나섰다.

강진만생태공원은 2014년 국립환경과학원이 하구역 생태계를 정밀조사한 결과

1,131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며, 남해안 하구 중 생물다양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천연기념물 201-2호인 큰고니의 도래지일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 종 10여 종이 서식하는 등 국가적 대표성을 가진 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하구역이다.

또 국가 해안길에 포함된 위치로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생태탐방학습홍보관과 생태체험관을 건축하고 있으며 강진만 생

태공원이 국가 생태탐방로로 신규지정되면 군민과 탐방객들에게 생태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자연환경 교육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강진만은 20만여 평의 갈대 군락지와 남해안 하구역 중에 최대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곳이다”며 “국가 생태탐방로로서 최고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강진만이 2022년에 국가 생태탐방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 강진청자축제 내달 1일 개막

### 백신 2차 접종자 대면 프로그램 참여 가능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됐던 강진청자축제가 올해는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온라인 축제로 선보인다.

29일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에 따르면 강진청자축제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군의 높은 백신 접종률과 온라인 참여가 힘든 연령층이 많은 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행사, 읍면 화합의 날 등 대면 프로그램도 준비할 예정이다.

강진군은 유튜브 채널(강진군 튜브)과 축제 홈페이지 등에 축제 운영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대구면 청자촌 주무대에 온라인 방송 스튜디오를 만들고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들을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가우도, 강진만 생태공원, 백운동 원림 등 강진명소를 배경으로 다양한 장르의 힐링 콘서트 ‘강진투어 힐링 버스커’가 축제 기간 중 4회 진행된다.

또 읍·면 랜선 노래자랑은 5일 예선 무대를 거쳐 6일 11명의 최종 본선 진출자를 선정하며 대상부터 입선까지 총 300만 원의 상금이 준비돼 있다.

/강진=한태선 기자

# 클릭! 고향 속으로



# 진도군 보건소, 베이비 마사지 호응

진도군 보건소가 ‘속속 크는 오감 발달 베이비 마사지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29일 진도군 보건소에 따르면 매주 금요일에 3~10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베이비 마사지 이론·실습 ▲영·유아 영양교육 ▲천연 베이비 오일·샴푸 만들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을 통해 성장 발달과 혈액 순환

에 도움이 되고 아이와 교감을 형성할 수 있어 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부모와 아기의 애착 관계 형성과 성장 발달에 도움을 줘 만족도와 호응도가 높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영·유아 건강과 행복한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진도=박병호 기자



# 강진 병영면 지사협, 책 나눔 사업

강진군 병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경제적 여건으로 책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책 나눔 사업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병영면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소년에게 평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격차를 줄여 교육 불평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진행했다.

책 나눔 사업으로 지원된 도서는 청

소년들의 관심 분야와 연령별 권장 도서를 선정했으며, 5명의 저소득 청소년에게 1인당 9만 원 상당 도서를 지원했다.

김규현 민간위원장은 “이번 사업이 청소년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지식습득으로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 목포경찰서, 공동체 치안 활성화 간담회

목포경찰서는 최근 차북영 경찰서장 및 생활안전연합회장, 목포·신안 자율방범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한 민·경 협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소 위축된 협력단체의 방법 활동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경찰과 협력단체가 상

호 협조체계를 강화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뜻을 모았다.

차북영 서장은 “그동안 자발적으로 보이지 않는 활동을 펼친 협력단체에 감사드리다”며 “협력치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목포=김동균 기자